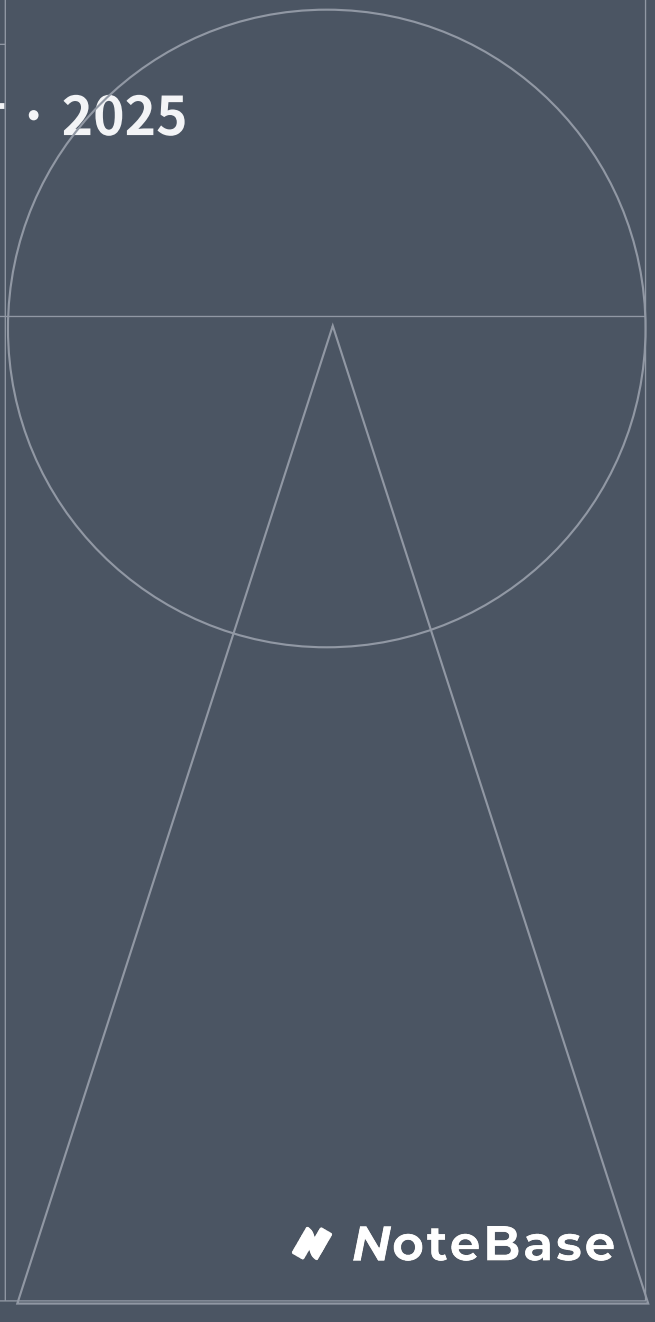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5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5

문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재정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정상태표상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정상태표상 일반순자산은 순자산에서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④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은 기본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정답 4번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의 세 범주로 분류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를 말한다.

NoteBase

③

일반순자산은 순자산에서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잔액**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순자산의 분류)
④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④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은 **기본순자산**이다. 순자산은 기본순자산에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더한 금액**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②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NoteBase

문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수행의무의 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②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③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④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고객의 자산 통제를 판단할 때는 **재매입약정을 고려해야 한다**. 판매자가 자산을 다시 살 권리나 의무를 가지면 고객의 자산 사용과 효익 획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수익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한다. 자산의 이전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 통제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남아 있는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수행의무의 이행 방식에 따라 한 시점에 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② X: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 판단할 때 **재매입약정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판매자에게 자산을 재매입할 의무나 권리가 있으면 고객은 자산을 물리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사용을 지시하고 남은 효익의 대부분을 얻는 능력이 제한되어 통제를 획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고려하지 않는다'를 '고려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거나 한 시점에 이행된다. **기간에 걸친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분류하고, 고객에게 자산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④ O: 기간에 걸친 수익 인식에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적절한 진행률 측정 방법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면 임의의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다만 계약 초기처럼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도 발생원가의 회수가 예상되면,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이때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3. 충당부채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며, 현재 의무에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② 기업의 미래 행위(미래 사업행위)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과거 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③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④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미래 행위와 관련하여'는 **'미래 행위와 독립적으로'**로 고쳐야 한다.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으로 이미 생긴 의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지출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과거 사건으로 인한 현재 의무, 높은 자원 유출 가능성, 신뢰성 있는 금액 추정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식한다.

① O: 충당부채를 인식하려면 과거 사건으로 인한 현재 의무가 있어야 한다. 법령이나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뿐 아니라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의제 의무는 기업의 관행이나 공표한 방침 등으로 상대방에게 기업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하여 생긴 의무이다.

② X: 충당부채의 대상은 과거 사건으로 생겨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무**이다. 미래 사업행위를 바꾸어 지출을 회피할 수 있다면 그 미래 지출에 대한 현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을 복구할 의무는 향후 영업방침과 관계없이 남지만, 앞으로의 영업을 위해 설비를 설치할 계획만으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③ O: 현재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무 이행을 위한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즉 현금 등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유출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커야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④ O: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므로 금액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추정은 가능해야 한다.

NoteBase

문 4.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별 취득한 특허권
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ㄷ.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
ㄹ.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개별 취득한 특허권은 **법적 권리로 식별**되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보기별 해설

ㄱ. 무형자산 인식: 특허권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법적 권리에서 발생하는 식별 가능한 자산**이다. 개별 취득한 경우 지급한 대가에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취득원가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ㄴ. 자산 인식 불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기업의 평판이나 시너지 등에서 생기는 가치이다. 기업 전체와 분리하거나 특정 법적 권리에 대응시킬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ㄷ. 발생 시 비용 처리: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점을 아직 입증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단계 지출은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발단계 지출이 일정한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한다.

ㄹ. 무형자산 인식 불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와 고객 목록에 대한 지출은 **사업 전체를 발전시키는 원가와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련 지출을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ㄱ뿐이므로 ①의 구성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5.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이거나 생산 중인 자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②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③ 외부에서 매입하여 재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토지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라 재고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외부에서 매입한 상품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면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직접 생산한 자산만 재고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뿐 아니라, **판매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자산**도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판매를 기다리는 완성품인 제품과 아직 생산이 끝나지 않은 재공품이 그 예이다.

② O: 재고자산에는 판매할 자산 외에 **생산이나 용역제공 과정에서 소비될 원재료와 소모품**도 포함된다. 이들은 그 자체를 판매하지 않더라도 제품을 만들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③ X: 외부에서 매입하여 재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재고자산은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정되지 않으며, 상품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다. 따라서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재고자산에 해당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토지의 분류는 자산의 물리적 형태만으로 정하지 않고 **기업의 영업활동과 보유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는 재고자산이다. 반면 기업이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NoteBase

문 6.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게임접근권에 대한 수익은? (단, 수익은 월할 계산한다)

◯ (주)한국은 게임기기를 ₩95,000에 판매하고 게임접근권 (1년 접근조건)을 ₩5,000에 판매하고 있다.
◯ 20×1년 10월 1일에 (주)한국은 100명의 고객에게 2% 할인된 가격으로 게임기기와 게임접근권을 묶음 판매하였다.
◯ 게임기기 판매와 게임접근권 판매는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하였으며, 게임접근권 판매의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

① ₩100,000
② ₩122,500
③ ₩367,500
④ ₩49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묶음 판매금액을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하면 게임접근권에 배분되는 금액은 총 490,000원이다. 이 중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만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20×1년도 게임접근권 수익은 122,500원이다.

계산 과정

1. 묶음 판매의 거래가격: 고객 1명당 개별 판매가격 합계는 95,000 + 5,000 = 100,000원이다. 여기에 2% 할인을 적용하므로 실제 거래가격은 100,000 × (1 − 0.02) = 98,000원이다.

2. 게임접근권에 배분할 금액: 게임기기와 게임접근권은 구별되는 수행의무이므로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에 따라 배분한다. 고객 1명당 게임접근권 배분액은 $98{,}000 \times \frac{5{,}000}{100{,}000} = 4{,}900$원이다. 고객이 100명이므로 게임접근권 전체에 배분된 금액은 4,900 × 100 = 490,000원이다. 이는 1년간의 접근권 제공에 대응하는 금액이다.

3. 당기 수익 인식: 게임접근권의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며 수익은 월할 계산한다. 1년은 12개월이고, 20×1년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의 제공기간은 **3개월**이다. 따라서 당기에 인식할 게임접근권 수익은 $490{,}000 \times \frac{3}{12} = 122{,}5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다음의 거래가 20×1년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 20×1년 1월 1일 현금 잔액은 ₩0
◯ 20×1년 3월 1일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1년 치 임대료 ₩360,000을 현금 수령
◯ 20×1년 9월 1일 1년분 보험료 ₩240,000을 현금 지급

① 재무상태표: 자산 ₩120,000 증가, 포괄손익계산서: 이익 ₩220,000 증가
② 재무상태표: 자산 ₩280,000 증가, 포괄손익계산서: 이익 ₩220,000 증가
③ 재무상태표: 부채 ₩60,000 증가, 포괄손익계산서: 이익 ₩280,000 증가
④ 재무상태표: 부채 ₩160,000 증가, 포괄손익계산서: 이익 ₩280,000 증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수익과 비용은 현금 수수액이 아니라 **20×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인식한다. 임대료수익 300,000원에서 보험료비용 80,000원을 빼면 이익은 220,000원 증가하고, 기말 현금 120,000원에 **선급보험료 160,000원**을 더하면 자산은 280,000원 증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해당 기간에 귀속시키고, 아직 수익이나 비용이 되지 않은 금액은 부채나 자산으로 남긴다. 20×1년 말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대료와 보험료를 월수에 따라 배분한다.

임대료수익과 선수임대료: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기간은 10개월이다. 당기 임대료수익은 $360{,}000 \times \frac{10}{12} = 300{,}000$원이다. 받은 현금 중 다음 해 1~2월의 2개월분인 60,000원은 **아직 제공하지 않은 임대기간의 대가**이므로 선수임대료라는 부채로 남는다.

보험료비용과 선급보험료: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보장을 받은 기간은 4개월이다. 당기 보험료비용은 $240{,}000 \times \frac{4}{12} = 80{,}000$원이다. 나머지 240,000 − 80,000 = 160,000원은 다음 해 1~8월의 보험보장에 해당하므로 **선급보험료라는 자산**으로 남는다.

재무상태표의 자산 증가액: 기초 현금이 0원이므로 기말 현금은 360,000 − 240,000 = 120,000원이다. 여기에 선급보험료 160,000원을 더하면 자산 증가액은 120,000 + 160,000 = 280,000원이다. 보험료 지급액 중 아직 비용이 되지 않은 금액도 자산에 포함하므로, **현금 증가액만으로 자산 증가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포괄손익계산서의 이익 증가액: 당기 임대료수익 300,000원에서 당기 보험료비용 80,000원을 차감하면 300,000 − 80,000 = 220,000원이다. 선수임대료 60,000원은 당기 수익에서 제외하고, 선급보험료 160,000원은 당기 비용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280,000원 증가하고 포괄손익계산서의 이익은 220,000원 증가하여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8. 간접법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 계산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차감하는 항목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감가상각비
ㄴ. 재고자산 증가액
ㄷ. 매출채권의 감소액
ㄹ. 매입채무의 감소액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재고자산 증가액은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고 재고로 남은 금액**을, 매입채무 감소액은 **외상대금을 지급하여 현금이 유출된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차감한다. 간접법은 이처럼 발생주의 이익을 실제 현금흐름으로 조정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간접법은 발생주의로 계산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출발하여,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손익과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을 조정한다. 비용으로 이익을 줄였지만 현금이 나가지 않은 항목은 가산하고, 이익에 반영되지 않은 영업 현금유출은 차감한다.

ㄱ. 감가상각비 — 가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한 금액이다. 당기의 이익을 줄였지만 **감가상각비 인식 자체로 현금이 유출되지는 않으므로** 다시 더한다.

ㄴ. 재고자산 증가액 — 차감: 재고자산을 취득해도 판매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당기의 매출원가로 처리되지 않는다. 이익 계산에서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재고자산 증가분에 투입된 금액**을 영업활동현금흐름에 반영하기 위해 차감한다.

ㄷ. 매출채권의 감소액 — 가산: 외상매출대금을 회수하면 매출채권이 줄고 현금이 들어온다. 회수 시점에는 매출수익을 다시 인식하지 않으므로, **당기의 수익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유입**을 반영하기 위해 감소액을 더한다.

ㄹ. 매입채무의 감소액 — 차감: 외상으로 매입할 때 생긴 채무를 지급하면 매입채무와 현금이 함께 줄어든다. 채무의 지급 자체는 당기의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이익에 반영되지 않은 현금유출**을 반영하기 위해 감소액을 차감한다.

차감하는 항목은 ㄴ과 ㄹ이며, ③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운영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국세수익과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이다.

②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만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③ 투자증권 중 지분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더라도 취득원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정답 1번

①

국가운영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가운데 **국세수익과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③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4.7.31>
3.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②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개정 2024.7.31>

③

지분증권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평가하지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투자증권의 평가)
③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개정 2024.7.31>

NoteBase

④

이러한 자산은 유산자산으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개정 2024.7.31>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20×1년 초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한국은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4년, 잔존가치는 ₩50,000으로 추정하였다. (주)한국이 20×3년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10,000인 경우, 동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취득 이후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은 없다)

① ₩100,000

② ₩200,000

③ ₩300,000

④ ₩40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20×3년은 3차 연도이므로 연수합계법의 상각률은 $\frac{2}{10}$이다. 감가상각비 10,000원에서 역산한 **감가상각대상금액 50,000원**에 잔존가치 50,000원을 더하면 취득원가는 100,000원이다.

계산 과정

계산 기준: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대상금액으로 삼고, 여기에 각 연도의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손상이 없으므로 손상에 따른 금액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20×3년의 상각률: 내용연수가 4년이므로 연수의 합계는 4 + 3 + 2 + 1 = 10이다. 20×1년 초에 취득했으므로 20×3년은 3차 연도이며, **해당 연도를 포함한 잔여내용연수는 2년**이다. 따라서 이 연도의 상각률은 $\frac{2}{10}$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 20×3년의 감가상각비 10,000원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frac{2}{10}$를 곱한 금액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0,000 ÷ (2)/(10) = 50,000원이다. 이는 내용연수 전체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할 총액이다.

취득원가: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잔존가치를 다시 더한다**. 취득원가는 50,000 + 50,000 = 100,000원이며,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사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할 때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유효이자율은 0보다 크다)

① 자본의 증가, 부채의 증가
② 자본의 증가, 부채의 감소
③ 자본의 감소, 부채의 증가
④ 자본의 감소, 부채의 감소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므로, 상각으로 그 잔액이 줄면 **사채의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상각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이익과 자본을 감소시킨다.

핵심 풀이

유효이자율법에서는 사채의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한다. 할인발행 사채의 이자비용은 액면이자보다 크며, 그 차액이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다. 상각액만의 분개는 차변에 이자비용, 대변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기록한다.

부채에 미치는 영향: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자산이 아니라 **사채의 액면금액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다. 이를 상각하면 차감할 잔액이 줄어들므로 사채의 장부금액, 즉 부채는 증가한다. 할인발행차금의 감소를 부채의 감소로 해석하면 안 된다.

자본에 미치는 영향: 상각액은 **추가 이자비용**이므로 당기순이익을 줄이고, 그 결과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본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자본의 감소, 부채의 증가'이다.

NoteBase

문 12.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잔액은 ₩10,000이다. (주)한국은 20×1년 중 ₩20,000의 매출채권을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장부에서 제거하였다. 20×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700,000이며, 기대신용손실은 ₩40,000으로 추정하였다. (주)한국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① ₩10,000

② ₩20,000

③ ₩40,000

④ ₩5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말 기대신용손실 40,000원은 당기 비용이 아니라 **기말에 남겨 둘 손실충당금**이다. 당기 손상차손은 여기에 당기 제각액을 더하고 기초 손실충당금을 빼서 40,000 + 20,000 − 10,000 = 50,000원으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

기말에 필요한 손실충당금: 손실충당금은 매출채권에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반영하는 차감계정이다. 20×1년 말 매출채권 700,000원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이 40,000원으로 주어졌으므로, 결산 후 손실충당금은 **대변잔액 40,000원**이 되어야 한다. 별도의 손실률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

당기 제각 후 잔액: 회수불능 매출채권 20,000원을 장부에서 제거할 때에는 손실충당금을 차변에, 매출채권을 대변에 각각 20,000원 기록한다. 즉, 제각액은 **기존 손실충당금을 감소**시킨다. 기초 대변잔액 10,000원보다 제각액이 10,000원 크므로, 결산 조정 전 손실충당금은 차변잔액 10,000원이 된다.

당기 손상차손: 차변잔액 10,000원을 없애고 기말에 필요한 대변잔액 40,000원을 남기려면 손실충당금을 대변에 10,000 + 40,000 = 50,000원 추가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손상차손 50,000원을 인식한다. 손실충당금의 흐름으로 확인하면 10,000 + 50,000 − 20,000 = 4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 손상차손 50,000원은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 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제품 중 하나인 제품 A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 A의 총원가는?

활동	원가동인	최대활동량	총원가
제품준비	제품준비 횟수	100회	₩ 200,000
기계이용	기계작업 시간	200시간	₩ 600,000
검사	검사수행 횟수	200회	₩ 400,000

기초원가	제품준비 횟수	기계작업 시간	검사수행 횟수
₩ 20,000	20회	20시간	10회

① ₩ 110,000

② ₩ 125,000

③ ₩ 140,000

④ ₩ 21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활동별 배부율에 제품 A의 활동 사용량을 곱하면 제조간접원가는 120,000원이다. 여기에 **기초원가 20,000원**을 더한 제품 A의 총원가는 **14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활동별로 나누어 각 원가동인의 사용량에 따라 제품에 배부한다. 이 문제에서는 활동별 총원가를 **최대활동량으로 나누어** 원가동인 한 단위당 배부율을 구한 뒤, 제품 A의 해당 활동 사용량을 곱한다.

제품준비: 총원가 200,000원을 최대활동량 100회로 나누면 배부율은 $\frac{200,000}{100} = 2,000$원/회이다. 제품 A는 제품준비 활동을 20회 사용하므로 배부액은 2,000원/회 × 20회 = 40,000원이다.

기계이용: 총원가 600,000원을 최대활동량 200시간으로 나누면 배부율은 $\frac{600,000}{200} = 3,000$원/시간이다. 제품 A의 기계작업 시간은 20시간이므로 배부액은 3,000원/시간 × 20시간 = 60,000원이다.

검사: 총원가 400,000원을 최대활동량 200회로 나누면 배부율은 $\frac{400,000}{200} = 2,000$원/회이다. 제품 A의 검사수행 횟수는 10회이므로 배부액은 2,000원/회 × 10회 = 20,000원이다.

총원가: 제품 A에 배부되는 제조간접원가는 40,000 + 60,000 + 20,000 = 120,000원이다. 기초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계이므로, 제품의 총원가를 구하려면 **기초원가에 제조간접원가를 더한다**. 따라서 제품 A의 총원가는 20,000 + 120,000 = 14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석유화학산업 등과 같이 표준화된 작업공정을 통해 한 가지 제품만을 대량생산하는 제조환경에 적합한 원가계산 방법은?

① 개별원가계산

② 종합원가계산

③ 결합원가계산

④ 활동기준원가계산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표준화된 공정에서 같은 제품을 대량생산하면 제품별 원가 발생 양상이 유사하므로, 공정에 모인 원가를 제품에 평균적으로 배분하는 **종합원가계산**이 적합하다.

공통 해설

종합원가계산은 일정 기간에 발생한 제조원가를 공정별로 집계한 뒤, 이를 생산된 제품에 평균적으로 배분하여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다. **표준화된 공정에서 동종 제품을 대량생산**하면 제품마다 원가 발생 양상이 유사하므로, 개별 주문이나 작업별로 원가를 구분하기보다 공정 전체의 원가를 모아 평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문제의 '한 가지 제품만을 대량생산'한다는 조건은 이러한 종합원가계산의 적용 조건에 해당한다.
석유화학산업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생산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종류의 제품이 하나의 공정에서 동시에 생산된다는 조건은 없으므로, 산업 예시만 보고 결합원가계산을 선택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5.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① 사무실을 1개월 후에 1년간 임차하기로 임대인과 계약 체결

② 업무에 사용하던 비품의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③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의 사용

④ 공장건물에 대한 수선 후 청구서 수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미래에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계약만 체결한 단계**에서는 아직 자산·부채·자본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체결 자체는 회계상 거래로 기록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자본의 금액이나 구성에 변동을 가져오며, 그 변동을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일상적인 계약이나 약속이 모두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현금이 오가지 않은 사건도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있다.

① X: 1개월 후부터 1년간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약정했을 뿐, 현재는 **계약만 체결한 단계**이다. 사무실 사용이 개시되거나 임차료가 지급되는 등의 이행이 아직 없으므로, 이 계약 체결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② O: 자연재해로 비품이 파손되면 비품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 당사자 사이의 매매나 현금 지급이 없어도 **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해야 하므로 회계상 거래이다.

③ O: 기계장치를 사용하면 그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므로, 취득원가 중 사용한 부분을 **감가상각**으로 배분한다. 제품생산에 사용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포함된다. 현금 지출 없이도 기계장치의 장부금액과 제품의 원가에 변동이 생기므로 회계상 거래이다.

④ O: 공장건물의 수선을 이미 제공받았으므로 수선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청구서 수령 후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인식해야 하므로 회계상 거래이다.

NoteBase

문 16.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그 기업의 경제적자원에서 해당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은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이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는 변동되지 않는다.

④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고 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은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도 변동한다**.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현금과 부채 또는 자본이 증가하지만, 그 자체가 기업이 창출한 성과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을 알면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그 자원에 대한 채권자·소유주의 권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유동성과 지급능력**, 추가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O: 재무성과 정보는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활용하여 창출한 수익**을 보여 준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경영진이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평가하고, 과거 성과를 토대로 미래의 수익 창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③ X: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은 재무성과뿐 아니라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으로도 변동한다. 예를 들어 사채를 발행하고 현금을 받으면 현금과 부채가 함께 증가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을 받으면 현금과 자본이 함께 증가한다. 이는 이익을 창출한 결과가 아니라 자금을 조달한 결과이므로,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는 변동되지 않는다'를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도 변동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현금흐름 정보는 기업이 현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했는지 보여 주므로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경영진이 기업의 경제적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사용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므로 수탁책임 평가에도 유용하다.

NoteBase

문 17. 다음 자료를 이용한 수정분개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계정과목	수정전시산표 잔액	수정후시산표 잔액
선급비용	₩ 2,000	₩ 1,000
미지급비용	₩ 2,000	₩ 3,000
선수수익	₩ 1,500	₩ 2,500
미수수익	₩ 3,000	₩ 4,000

① ₩ 1,000 감소

② ₩ 2,000 감소

③ ₩ 3,000 감소

④ ₩ 4,000 감소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수정분개로 **비용은 2,000원 증가**하고, 수익은 감소분과 증가분이 상쇄되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2,000원 감소**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수정 전후 시산표 잔액의 차이로 추가 인식할 수익과 비용을 구한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므로, 수익 증가는 이익을 늘리고 비용 증가는 이익을 줄인다.

선급비용: 2,000원에서 1,000원으로 1,000원 감소했다. 선급비용은 미리 지급한 금액 중 아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자산이다. 자산이 줄어든 1,000원은 **당기에 소멸한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한 것이므로 당기순이익이 1,000원 감소한다.

미지급비용: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증가했다. 이는 **당기에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1,000원을 추가로 인식한 것이다. 비용과 부채가 각각 1,000원 증가하므로 당기순이익이 1,000원 감소한다.

선수수익: 1,500원에서 2,500원으로 1,000원 증가했다. 선수수익은 대금을 미리 받았지만 아직 수익으로 인식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을 나타내는 부채이다. 이 부채를 1,000원 늘리는 수정은 이미 인식한 수익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1,000원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당기순이익이 1,000원 감소한다.

미수수익: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증가했다. 이는 **당기에 발생했으나 아직 받지 않은 수익** 1,000원을 추가로 인식한 것이다. 자산과 수익이 각각 1,000원 증가하므로 당기순이익이 1,000원 증가한다.

합계: 비용 증가액은 1,000 + 1,000 = 2,000원이고, 수익 변동액은 −1,000 + 1,000 = 0원이다. 당기순이익 변동액은 0 − 2,000 = −2,000원으로, ②의 2,000원 감소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8.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 후 집합손익 계정의 잔액은 ₩100,000이다. 수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집합손익 계정의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① (차): 수익 ₩100,000, (대): 집합손익 ₩100,000

② (차): 이익잉여금 ₩100,000, (대): 집합손익 ₩100,000

③ (차): 집합손익 ₩100,000, (대): 비용 ₩100,000

④ (차): 집합손익 ₩100,000, (대): 이익잉여금 ₩10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집합손익의 100,000원은 당기순이익을 나타내는 **대변잔액**이다. 이를 마감하려면 집합손익을 차변에 기록하여 잔액을 없애고, 이익잉여금을 대변에 기록하여 증가시킨다.

핵심 풀이

집합손익은 수익과 비용을 모아 당기손익을 계산하는 임시 계정이다. 수익을 마감할 때는 집합손익의 대변으로, 비용을 마감할 때는 집합손익의 차변으로 금액을 옮긴다. 따라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집합손익에 대변잔액이 남으며, 이 문제의 100,000원은 당기순이익이다.

대변잔액 100,000원을 없애려면 집합손익의 차변에 같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동시에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므로 이익잉여금은 대변에 기록한다. 마감분개는 ④의 '(차) 집합손익 ₩100,000 / (대) 이익잉여금 ₩100,000'이다. 이 분개로 **집합손익 잔액은 0**이 되고 이익잉여금은 100,000원 증가한다.

수익이나 비용을 상대계정으로 쓰는 ①·③은 수익·비용 계정을 집합손익으로 옮기는 단계의 분개이다. 문제에서는 이 단계가 이미 끝났다. ②처럼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집합손익을 대변에 기록하는 방향은 **당기순손실로 집합손익에 차변잔액이 남았을 때** 적용한다.

NoteBase

문 19.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시간으로 배부하고 있다. 20×1년도 제조간접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이 ₩1,000인 경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제조간접원가 예산	예정 직접노무시간	실제 직접노무시간
₩ 10,000	100시간	120시간

① ₩ 11,000

② ₩ 12,000

③ ₩ 13,000

④ ₩ 14,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는 **예정배부율에 실제 직접노무시간을 곱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배부액 12,000원보다 실제 발생액이 과소배부액 1,000원만큼 크므로, 실제 발생액은 13,000원이다.

계산 과정

1. 예정배부율 계산: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미리 정한 배부율로 배부한다. 직접노무시간을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므로, 제조간접원가 예산 10,000원을 예정 직접노무시간 100시간으로 나눈다. 예정배부율은 $\frac{10,000}{100}$ = 100원/시간으로, 직접노무시간 1시간당 제조간접원가 100원을 배부한다는 뜻이다.

2.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계산: 예정배부율에 **실제 직접노무시간 120시간**을 곱한다. 배부액은 100원/시간 × 120시간 = 12,000원이다. 이는 실제 작업에 대해 제품원가에 배부한 제조간접원가이다.

3. 실제 발생액 계산: 과소배부는 **실제 발생액이 배부액보다 큰 경우**이다. 따라서 과소배부액 1,000원을 배부액에 더하면 실제 발생액은 12,000 + 1,000 = 13,000원이다. 이는 ③의 13,000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자료를 이용한 제조간접원가는?

◯ 기초원가 ₩350,000
◯ 기초재공품 ₩150,000
◯ 기말재공품 ₩300,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500,000

① ₩250,000
② ₩300,000
③ ₩350,000
④ ₩4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제조간접원가는 **당기총제조원가에서 기초원가를 뺀 금액**이다. 재공품 증감을 반영한 당기총제조원가는 650,000원이므로, 제조간접원가는 650,000 − 350,000 = 30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기초원가의 의미
기초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여기서 '기초'는 **기간 초의 원가를 뜻하지 않는다**.
당기총제조원가는 이 기초원가 350,000원에 제조간접원가를 더한 금액이다.

2. 당기총제조원가 계산
기초재공품에 당기총제조원가를 더한 뒤 기말재공품을 빼면, 당기에 완성된 제품으로 대체되는
당기제품제조원가가 된다. 따라서 당기제품제조원가 500,000원에 **기말재공품을 더하고 기초재공품을 빼서**
당기총제조원가를 구한다. 기말에 미완성으로 남은 원가는 포함하고, 전기에서 넘어온 원가는 제외하는 것이다.
당기총제조원가: 500,000 + 300,000 − 150,000 = 650,000원

3. 제조간접원가 계산
당기에 발생한 총제조원가 650,000원에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계인 기초원가 350,000원을 빼면
제조간접원가가 남는다.
제조간접원가: 650,000 − 350,000 = 300,000원
계산한 300,000원은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